



대신정보통신(주) POD사업본부

IT기술 바탕으로 프린팅 비즈니스의 토달솔루션 제공



IT기술과 인쇄기계가 결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요즘이지만 패키지나 번들 수준을 벗어나서 1:1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사례나 이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87년 출범한 대신정보통신(대표 이재원, www.dsic.co.kr)은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령적인 정보통신분야의 회사이지만 IT기술과 시스템프린터를 융합한 고객맞춤형 디지털프린팅사업을 하는 POD사업본부(본부장 김종배이사)는 많은 고객을 확보,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POD사업본부는 특화 및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기울여 왔으며 오세코리아, 다이니폰스, 크린코리아, 리코 등 유력한 프린터 제조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하고 생산성 높은 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프린터와 토달 Out_put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POD사업본부는 현재 20여 임직원들이 POD 및 디지털 프린팅과 관련된 기술자문에서부터 시스템 공급 및 구축, 운영지원과 24시간 열린 체제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사의 주력 분야인 IT기술과 디지털프린팅 노하우 및 특화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디지털 프린팅 비즈니스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POD사업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종배 본부장은 사업 본부의 출범 때부터 관여해 오고 있는데 IT기술과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이 투자에 대한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원칙이 사업본부의 출범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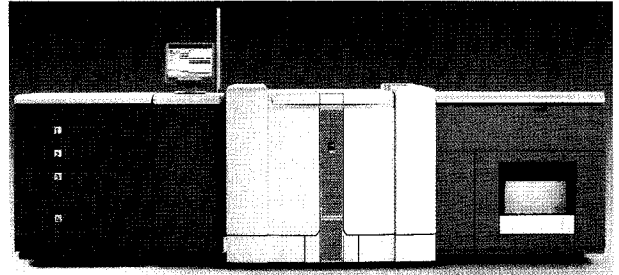
실제로 POD사업본부의 실천적인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람, 기술, 연구개발”이라는 사업본부의 모토이며 이는 사업본부 출범 초기의 완제품 위주 공급에서 시스템 프린터 공급 및 솔루션 탑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다.

현재 POD사업본부의 업무 영역은 사업디지털 프린팅시스템의 설계, 상담과 분석을 비롯해 인쇄시스템 최적화를 주로 진행하는 전문기술자문부문, POD지원시스템, 인쇄업무관리, DM센터 지원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S/W솔루션 부문, 최적인쇄요구지원,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부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POD사업본부의 유기적인 조직 구축으로 자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POD시스템용 인쇄기 및 컬러 프린터 등의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쇄산업의 미래기술, POD시대에 선제적 대응

지난해 POD사업본부는 오세코리아의 디지털인쇄기를 10여대 공급한 것을 비롯,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의 디지털인쇄기도 다수 공급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김종배 본부장은 “현재도 POD인쇄기계 및 솔루션을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2009년에는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신규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이미 보유중인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사업의 전개와 On-Line연계를 통한 시장의 확대, 맞춤형인쇄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 소량 다품종 인



오세코리아의 VP6250 Basic

쇄에의 대응 및 신속한 납품으로 고객 편의를 제공해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POD인쇄는 오프셋인쇄에 비해 투자규모가 저렴하고, POD 인쇄/납품에 의해 재고비용이 감소될 뿐 아니라 맞춤형인쇄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이 비교적 손쉽기 때문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의존이 감소해 비용절감에 의한 수익성 확보에 일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과 팀워크의 조화로 효율적 업무 추진

POD사업본부는 회사 내의 다른 부서에 비해 근무기간이 유난히 긴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현재 입사 10년차가 막내일 정도여서 부서원들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와 이해도가 높으며 부서내 업무 협조도 활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힘입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10년차 막내인 시스템프린터팀 박영남 과장의 말이다.

같은 팀의 김 상환 차장은 POD사업본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사실상 S/W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2달에서 최장 3~4개월간은 집중 점검과 관리를 하여 장비의 원활한 가동과 솔루션 활용을 도와 고객의 수익이 극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POD사업본부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속, 풀컬러 인쇄기와 대형인쇄기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고객의 영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S/W를 공급하고 있다. 시장세분화와 통합적인 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대신정보통신은 타경쟁사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POD시장의 확장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